

한국교육행정학회 뉴스레터 제136호 별책

2018년 학회장 편지

< 차 례 >

1. 신년인사	1
2. 봄에 드리는 학회장 편지	2
3. 여름에 드리는 편지	3
4. 학회장의 가을 편지	4
5. 학회장의 송년 편지	5

학회 새 반세기 도약의 꿈을 향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는 논의의 장을 가졌습니다. 주철안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고와 회원 한분 한분의 협력과 염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부터 우리 학회는 새로운 반세기 도약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꿈은 전문학회로서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배양·신장하고 실천적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도록 돕는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장정의 첫 걸음으로 올해는 학교지도자 및 실무자가 교육행정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넘어 '양성'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획기적 진전이 있어 온 연구 측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행정학에 특화된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를 마련하고 학회 차원에서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회 발간 학술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술대회는 그 중요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참여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시성을 가지고 운영될 포럼과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올해는 특히 분과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과 계획은 오로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사님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봉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첫 여성 학회장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회원님의 professional life와 개인적 삶 모두에서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謹賀
新年



2018년 1월 7일
제 46대 회장 김혜숙 올림



봄에 드리는 학회장 편지

회원 여러분, 봄 내음이 물씬한 계절에 본주함 속에서도 모두 평안하시지요?

연초에 신임 학회장으로서 인사편지를 드렸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올해 저는 선생님들께 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 때 그 때 말씀드리고 주시는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학회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9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추진 중인 몇몇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를 학습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교육리더십'에 관한 기획 주제뿐만 아니라 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어 개별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침엔 커피와 샌드위치를 9시부터 준비하겠으니 일찍 오셔서 담소 나누시며 유쾌하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프로그램을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다음 일정을 달력에 미리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학문 동료들과 후속세대가 1년에 3번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명	일시	장소(안)
춘계 학술대회	2018. 5. 26(토) 09:30 - 18:00	동국대학교
추계 학술대회	2018. 9. 15(토) 09:30 - 18:00	연세대학교
연차 학술대회	2018. 12. 1(토) 09:30 - 18:00	전북대학교(또는 한국교육개발원)

학회 Facebook 계정을 새로 개통했습니다. SNS를 통해 회원간 의사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히 차세대가 보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홍보망을 갖추는 셈입니다. 우선은 공지 사항과 유관 기관 정보 등을 탑재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차후 기획홍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뉴스레터는 연간 4회에서 3회 발간합니다. 결국 학문공동체로서의 의사소통은 이메일, 학회 홈페이지, SNS의 3중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로 하겠고, 학회 홈페이지는 많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보다 User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eas1967/>

위 주소로 접속하신 후 페이스북 로그인(페이스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 후 로그인) → 재접속 → 화면의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로 가입 시 문제가 발생하시면 엣지, 크롬 등의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연회비 5년, 3년 일시납 도입 등 의미있는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비 납부 문제에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습지만 창립 51년차인 올해부터는 그 의미와 긴요성을 회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납부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비 5만원에 대해 5년납은 연 4만원으로, 3년납은 연 4만 5천원으로 감면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이려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납하신 연회비는 올해 예산에 각 4만원, 4만 5천원씩 반영하고 연회비 이월 계정을 따로 만들어 내년과 그 이후 연도에 각각 배정하여 미래의 회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비 납부 인센티브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선임직 이사님들께서 지난해부터 연회비와 별도로 이사회비를 납부해 주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해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안내 받으신대로 4월 20일(금) 오후 3시부터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교육 관련 헌법개정'에 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와 별개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포럼을 시의성 있게 2-3차례 열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한 학술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재정기금위원회, 포럼운영위원회 활동 외에도 5월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윤리위원회와 학술편찬위원회가 각각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 등재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를 연 5회 발간하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심사자 희망 분야를 조사할 예정이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위원회가 알려드린 미국 교육행정학회 (UCEA) 연차학술대회(2018년 11월 15일~18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 발표계획서 마감일 5월 6일(일)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무국을 중심으로 학회 위상에 맞는 고유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탐색 중입니다.

주실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받으신 메일 답신 또는 제 개인 메일(hsk1606@naver.com)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2018. 4. 19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46대 학회장 김혜숙 올림

가을이 시작될 때 만나 뵙겠습니다!!

전례없는 무더위 속 나날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따뜻한 4월에 춘계 학술대회를 앞두고 봄 편지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한여름 속을거닐고 있네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지금처럼 기다려진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주 후면 추계 학술대회로 다시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할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동국대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는 300여 분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학습 커뮤니티로서의 진가를 볼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교육리더십'에 관한 기획 주제를 포함해 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어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교실을 옮겨 다녔고 많은 토론을 통해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대폭 늘어난 토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못해 토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학술위원회의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계 학술대회는 9월 15일(토)에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대학원 교육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외에도 연구자라면 관심을 가질 학술지 심사 및 게재과정에 대해 '한국교육행정학연구'와 학회 발간 영문 학술지 'JEAP'의 편집위원장과 이야기 나누는 세션, 그리고 춘계 때의 호응을 바탕으로 심화된 논의가 이어질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세션이 열립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3개 세션이 동시에 운영되며, 개회 전 9시~10시에는 다과와 함께 리셉션이 준비되니 일찍 오셔서 오랜만의 담소와 교류의 유쾌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때 '소나무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연세대 캠퍼스의 '청송대'를 오가는 쓸쓸한 즐거움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번 추계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자면 임시총회 이후 5시부터 열리는 **대학원생, 현직교원, 신진 학자, 소장 학자의 그룹별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입니다. 같은 배경을 가진 회원님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킹을 만들고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을 계기로 네트워킹을 확대·지속 한다면 회원 간 유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유익함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계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 발표 기회의 확대**입니다. 교육행정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위 취득 후 학계 공식 데뷔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공식적 발표 기회 없이 지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위논문 발표 세션을 확대하여 2016년 2월 이후 지난 3년 동안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표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사자분들께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적극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도교수님과 주위 분들께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 발표 기회가 학술대회 때 연 1회 이상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 학위를 받은 분들은 예외없이 발표 기회를 갖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학위논문 발표자에게 드릴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업무 중 일상적이지 않은 보고 사안은 **사단법인화와 사무공간 확보 관련 특별 TF**가 구성되어 한여름에도 수고하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뉴스레터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의 높은 위상과 51년 역사, 향후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사단법인화와 공간 확보' 논의가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춘계 학술대회 당시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TF팀(위원 11인, 위원장: 임연기 교수님)이 여러 측면의 면밀한 검토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순조로운 추진을 기대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1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계 학술대회 임시총회 때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편지는 학회의 여러 일들을 말씀드리고 회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운영에 참고하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학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받으신 메일 답신 또는 제 개인 메일(hsk1606@naver.com)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에 개통된 Facebook 계정(<https://www.facebook.com/keas1967/>)을 통한 소통도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연차 대회는 12월 1일(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개발원이 진천으로 이전한 후 아직 방문하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 중인데(자유주제 발표 세션도 있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여름 동안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 8. 11

한국교육행정학회 46대 학회장 김혜숙 올림

추계대회 보고, 그리고 연차대회 소식입니다!

기분 좋은 공기, 알록달록 잎새로 아름다운 이 가을을 선생님께서도 만끽하고 계시지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 끝에 만난 청명함이라니... 지난 주말, 저는 홍전 은행나무숲길에서 휘날려 떨어지는 노랑 은행잎을 보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떠 올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섭리는 인간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는 300여 회원님들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가운데 발표, 토론, 사회, 좌장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성료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교육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3-4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학습 커뮤니티로서의 학회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피드백을 여러 분이 주셨습니다. 몇몇 세션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바람에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 앉아 계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획주제는 학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핵심 내용입니다만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학술지 심사과정 이해 세션 등 회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개별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계대회 박사학위 논문 발표는 당초보다 확대된 3개 세션에서 12분의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신진학자들의 학계 공식 데뷔를 알리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매 세션에서 발표자들에게 발표증서와 기념품을 전하며 피차 인상적 경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위를 받으면 전공학회 발표를 통해 공식 데뷔를 알리는 관례로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학원생, 현직교원, 신진 학자, 소장 학자의 그룹별 네트워킹은 그룹에 따라 호응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참석자 대부분이 네트워킹 노력의 지속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 시도였던 만큼 운영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 사단법인화를 위한 법인창립총회가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특별 TF팀의 활동 끝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취지서와 정관(안)이 통과되고 임원 선출(윤정일 이사장님 외 이사 6인, 감사 2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번거로운 일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하며 승인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연차 학술대회는 12월 1일(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행정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립니다. 춘계대회 주제였던 '한국의 교육리더십: 실제와 연구 쟁점'과 쌍을 이루어 올해의 대주제인 '교육리더십'의 후반부를 장식하게 됩니다. 기획주제로 '학교행정이 전문성의 의미와 제발 전략,' '학교장의 한국형 직무표준(미국의 ISLLC에 준하는 한국형 표준의 구안), '우리나라 교장의 직무 수행과 리더십: 현실과 과제'가 발표됩니다. 기획 주제 발표와 별도로 관계자들의 시각과 목소리를 듣는 패널 세션을 통해 학교장 리더십 문제의 현장 밀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자유주제 발표의 어젠다 세션, 페이퍼 세션 공모에 여러 분이 응해 주셨기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역동적 학술대회 풍토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교육행정학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세션은 학회 활동의 글로벌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연차대회 장소인 교육개발원은 서울 양재역 기점 105km,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인 충북 진천에 있습니다. 이전 후 아직 방문하지 못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연차대회 참석을 계기로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멀지 않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가 용이한만큼 자가용 이용을 권해 드리며, 지인 2-3분이 함께 이동하시는 방식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가 양재역에서 45인승 대형 1-2대, KTX 오송역에서 25인승 중형 1대로 왕복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용하실 분은 참가 신청시 승차 신청도 함께 해 주시면 되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셔틀 보증금은 승차 시 바로 현금 반환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회장 선출 투표용지를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권은 회칙에 따라 당해연도 기준 2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분께 주어집니다. 2018년도 연회비를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하셔야 내년도에 연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2019년도 투표권자가 됨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회비 납부 회원님들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학회 발간 모든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집, 포럼 자료집 등을 개별적으로 이메일 발송해 드리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학회장의 계절 편지는 분기 단위로 학회 일들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회원님들의 피드백을 받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받으신 메일 답신 또는 제 개인 메일(hsk1606@naver.com)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회 Facebook 계정(<https://www.facebook.com/keas1967/>)을 통한 소통도 더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연차 학술대회에서 다시 뵈 때까지 가을의 풍요로움이 선생님의 학문생활과 개인생활 모두에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8. 10. 26

한국교육행정학회 46대 학회장 김혜숙 올림



학회장의 송년 편지

학회 새 반세기의 첫 해를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학회 창립 51년 차인 2018년이 저물어 가는 이 때 분주함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지요? 신년인사 편지로 시작하여 봄, 여름, 가을 편지에 이어 마지막으로 송년 편지를 올립니다. 학회 운영은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각 분과위원회의 성실한 임무 수행, 사무국의 지원이 합쳐질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함으로 자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학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가장 큰 성취는 3번의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모여 학습하는 학문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 26일 춘계(교육리더십 주제, 동국대), 9월 15일 추계(대학원교육 주제, 연세대), 12월 1일 연차(학교장 전문성과 리더십 주제, 한국교육개발원) 대회에 연 인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넉넉한 토론을 위해 90분씩으로 늘어난 3개의 세션이 생동감 있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운영해 온 기획 주제 세션 이외에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등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세션이 있었고 자유 주제 발표 혹은 박사학위 논문 발표의 제 3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획주제 논문 발표를 기꺼이 맡아 주신 발표자님들과 다양한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유주제 개인 논문 발표는 페이퍼 세션 외에 어젠다 세션을 새로 운영하였으며 춘계, 연차 및 교육학회 분과발표까지 연간 3회로 기회가 확장되어 많은 논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추계 대회 때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12편에 달해 신진 학자의 학계 데뷔를 축하한 것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밖에도 그룹별 네트워킹 세션 등 회원님들의 요구에 터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는데 발전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기획주제 논문 발표를 제외한 모든 학술대회 진행을 회원님들께서 봉사로 기여해 주셨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학회의 선진적 운영을 지향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한 학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사단법인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6년 부회장 선출 당시 운영방침에 포함했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학회장 직무를 시작하며 51년차를 맞은 학회의 역사와 위상, 누적된 기금의 합리적 활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무공간의 필요성 등 여러 측면에서 법인화를 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화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는 2018년 3월부터 기초 자료 조사와 의견 청취, 그리고 기금을 적립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26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학회 법인화 및 사무공간 확보’를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2단계는 이후 TF가 구성되어 6월 25일 1차 회의 이래 활발히 활동하여 9월 15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정관(안) 통과와 이사 7인, 감사 2인을 선임하기까지 입니다. 3단계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14인의 발기인과 회원님들의 전폭적 협조를 통해 복잡다단한 법인화 관련 서류의 준비와 제출, 보완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1월 30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게 된 단계입니다. 법인화 추진에서 사무국 전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소재지도 공간사용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적 부담에 대해 몇몇 분들이 보여 주셨던 애정 어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 136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10개월여의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회원님들, TF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어려운 책무를 맡아 주신 이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무국 운영에서도 올해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년 임기 학회장 체제는 장점도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무국 운영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차기 사무국에 전달하여 업무인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학회장 직무 관련 내용도 문서화하여 차기 학회장님께 전할 예정인데 학회 운영의 연속성과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며 다음에 수고하실 사무국 및 학회장께 매년 단위로 보완된 매뉴얼이 계속 전달된다면 학회 발전의 또 다른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회원 연회비의 3년, 5년 할인 납부제 시행은 납부 편의성과 회비 수입 증대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학술대회 참가비의 조기신청 할인제도 운영으로 참가 독려 효과와 함께 대회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학회 Facebook 계정 (<https://www.facebook.com/keas1967/>)이 새로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활발한 소통의 또 다른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법인으로서는 사무공간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최선의 결과를 향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법인화 이후 세무 관련 업무의 숙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실체화 등 후속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차 영문 학술지의 발간이 미루어진 것은 안타깝고 송구한 일로서 향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도 학회 역사와 기록을 잘 담아내야 하는 문제 등 구조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많지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큰 비용을 투입할 수 없어 최소 보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 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술대회의 형식과 횟수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하였습니다. 행사에 잠시 왔다 가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진정한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학술대회 풍토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학회 발간 학술지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 풀의 심사 가능 분야와 방법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보다 정교하고 선진화된 심사체계 확립과 논문의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 학회 차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어찌다 보니 직무를 맡게 된 첫 여성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학계라는 토양에서 성장해 온 학자의 입장에서 보은의 심정으로 나름 열심히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는 반상진 학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또 다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말연시 맞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8. 12. 26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46대 학회장 김혜숙 올림

